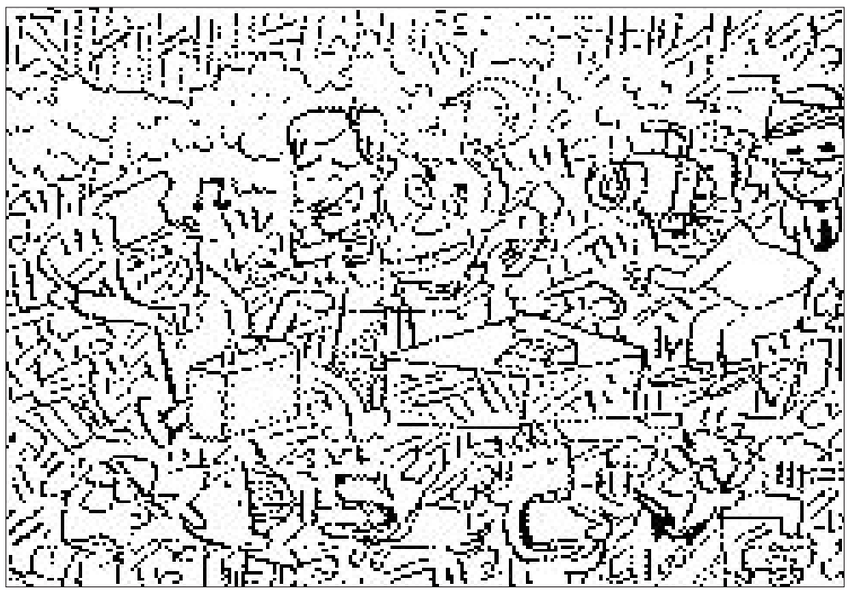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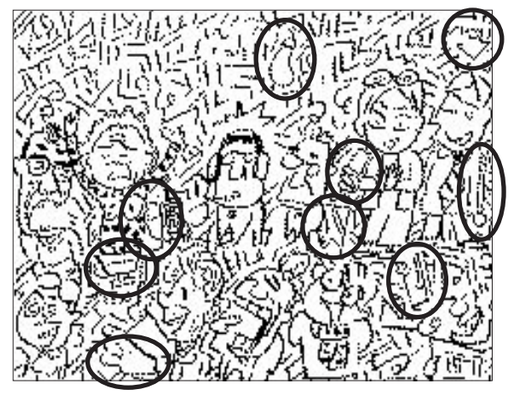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펜촉, A자, 열대어, 음표, 셔틀콕, 부엌칼, 상어, 다리미, 못

속고 속이고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전화해 자장면을 주문했다. 20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았다.

나 : 중국집이죠? 아까 자장면 시켰는데요. OO번지요.
중국집 : 네, 출발했습니다!
나 : 그래요? 아직 출발 전이면 탕수육 하나 더 시키려고 했거든요.
중국집 : 아,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네요!
나 : 진짜 출발 안 했나요?
중국집 : 예! 출발 안 했습니다.
나 : 그럼 전부 취소 할게요!



지난주 정답

열대어, 담배 파이프, 펜촉, 성냥개비, 아이스크림, 볼링핀, 가지, 새집, 다리미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채준영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김유미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

리빙 센스

피부에 좋은 과일①

◆파인애플
노란색을 띠는 과일은 비타민 C가 많아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투명하게 해준다. 파인애플은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보습 효과도 있다.
파인애플팩은 물 1/2컵에 해초가루 1/2작은술을 넣고 잘 섞은 다음 파인애플즙 1큰술과 글리세린 1작은술을 넣어 만든다. 팩이 적당히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다. 글리세린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를 예방하는 과일이다. 특히 적당한 유분기가 함유되어 피부 수분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팩으로 사용할 때는 작게 썬 아보카도 과육 120g과 오렌지주스 50cc, 아카시아꿀·흑설탕·현미유 10g씩을 믹서에 넣고 저속에서 1분, 고속에서 1분 정도 돌려 부드러운 크림 상태를 만든 다음 얼굴과 목에 바르고 30분 후에 미온수로 씻어낸다.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29년 11월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작

1929년 10월30일 오후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분주하던 나주역에 소란이 벌어졌다.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 여학생들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피해를 당한 한 여학생의 사촌 남동생이 사과를 요청했으나 일본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희롱을 멈추지 않아 한·일 학생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본 순사는 일방적으로 한국학생의 책임을 물으면서 양국 학생들의 대립이 고조된다.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일제의 4대 국경일의 하나인 명치절(명치천황의 생일)인 11월3일 마침내 억눌려있던 민족감정이 터져나왔다.

일요일인 데도 불구하고 일제는 한국 학생들을 동원하여 성대하게 명치절 기념식을 치렀다. 그러자 광주고등보통학교학생(광주제일고의 전신)들은 일제에 대한 반발로 기념식장에서 일본국가 제창시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이날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오던 일본인 중학생들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나면서 한국 학생이 단도에 찔려 코와 안면에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광주여고보, 광주사범학교등 광주 전역의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지를 돌면서 시위를 벌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일어난 제1차 학생 시위로 인해 70여명의 학생들이 구속되고 광주 시내 모든 학교에 11월 9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항거 움직임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펴져 나가 전국적으로 149개교 5만4천여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 항쟁으로 퇴학 처분 533명, 권고 퇴학 49명, 무기 정학 2천330명, 자진 퇴학 352명, 강제 전학 289명, 검거 1천462명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6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동맹휴교등의 학생시위와 항일 비밀 학생조직인 성진회의 활동이 발판이 된 1920년대 학생운동의 결산이다.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민족의 독립과 식민지 교육체제를 반대하며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대표적인 민족운동 중 하나로 그규모나 영향 그리고 의의에서는 3·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한편 1954년 6월10일 전국의 학생들이 낸 성금으로 광주고보내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이 건립되었다. 기념탑에는"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씌여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음 10월 1일 壬寅)

子 36년생 서로 경쟁하듯 나가니 흉하고 길은 적다. 48년생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진은 있다. 60년생 득보다는 실이 많다. 72년생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인내하라. 84년생 겉으로는 협조가 이루어진 듯하나 결과는 미미하다. 행운의 숫자 : 13,41

丑 37년생 마무리를 잘하면 큰 득은 있다. 49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61년생 백사가 불성하니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 73년생 모든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길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0,39

寅 38년생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50년생 장기간 음지에서 벗어난 기쁨이 다가 올리니. 62년생 생기가 발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74년생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라. 행운의 숫자 : 15,33

卯 39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51년생 추진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리라. 63년생 상문으로 식구가 줄 수도 있다. 75년생 새로운 소식은 있으나 서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8,32

辰 40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지막 더한 조심도 같이 해야. 52년생 배인 편에 애사가 발생 할 수도. 64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재수가 있을 수도 있다. 76년생 초행 길은 불편하고 낯설다. 행운의 숫자 : 02,43

巳 41년생 앞으로의 불편한 일을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53년생 길이 답답하고 안보이나 숨통은 트인다. 65년생 직장의 흐름을 읽어보라. 77년생 자녀문제가 발생하니 주변을 잘 살펴야. 행운의 숫자 : 10,42

午 42년생 화는 많고 길한 일은 적으니 변화를 자제하라. 54년생 부부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보내라. 66년생 적은 돈의 소비가 있다. 78년생 역습을 당하는 형상이나 큰 불편한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4,27

未 43년생 길사는 적고 흉사가 많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5년생 규모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면 대손은 없다. 67년생 자신의 일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라. 79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23,43

申 44년생 고역은 없으니 마음 놓고 지내라. 56년생 내용으로는 통한 듯 하나 일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68년생 의욕적인 추진은 있으니 제자리걸음이다. 80년생 겉은 미려하지만 내부는 불행의 씨앗이 움튼다. 행운의 숫자 : 16,22

酉 45년생 집나간 지식이 돌아온 형상이나 결과는 허망할 수도 있다. 57년생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배가 되어 당하리라. 69년생 급히 서두르면 큰 손해가 온다. 81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2,44

戌 46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고 협조자가 나타난다. 58년생 새로운 사업 구상을 제의 받고 조직이 생긴다. 70년생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협력자를 돌아보라. 82년생 요행을 삼가하고 실천으로 보여줘라. 행운의 숫자 : 19,31

亥 47년생 될 듯한 구상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다. 59년생 낭설은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 71년생 대문 안과 밖을 살펴보면 失物을 예방한다. 83년생 가정의 안정이 있고 식구가 느는 길사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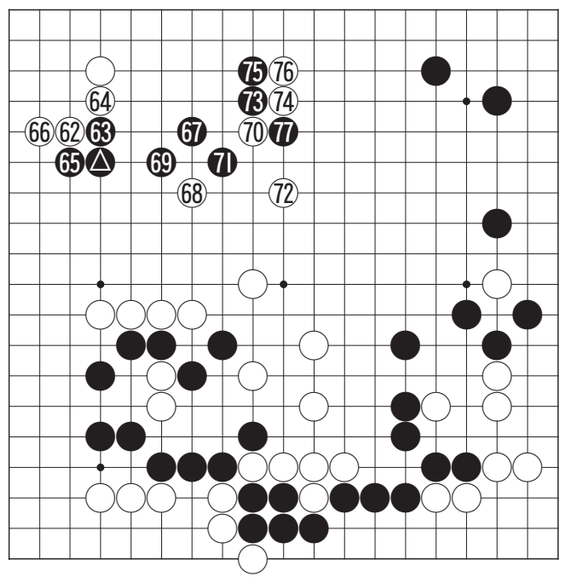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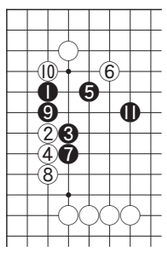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고생을 자초한 걸침

초등부 최강부 결승전 5보(62~77)

白 강민후 3단 (조봉초 6) 黑 김태훈 3단 (신창초 6)





〈참고도〉

선수를 뽑은 김태훈군이 호기롭게 흑 ▲로 걸쳐간 장면인데 이 수가 기분에 치우친 고생을 자초한 수였다. 지금은 백의 세력이 강대하므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날일자로 걸쳐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했다. 백은 2로 협공하는 정도인데 11까지 쉽게 모양을 갖출 수 있다.

강민후군이 백 62로 실리를 취하며 밖으로 몰아낸 것이 좋은 작전이며 68이 통렬한 공격의 급소로 김태훈군을 당황하게 한다.

흑 69로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프며 재차 백 70, 72로 공격을 당하여 백의 세력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흑 73으로 붙인 것은 고심의 일착, 보통 때 같으면 백 74로 막혀 대악수가 되지만 지금은 모양을 따질 겨를이 없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흑 77은 초강수인데 과연 수습이 가능할 것인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77>

What's going on?

잘 지내?

A : What's going on?
B : I just got back form church.
A : How did the service go?
B : It was really powerful.

A : 안녕, 잘 지내지?
B : 예배보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요.
A : 예배는 어땠어?
B : 정말 좋았어.

* go on ~ : (일이) 일어나다
* get back : 돌아오다
* church : 예배
* 파티는 어땠어?
= How did the party go?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77>

この映画みましたか

이 영화 보셨나요?

A:この映画(えいーが)みましたか。
B:ええ、みました。でも、これは映画(えいーが)より小説(しょうーせつ)の方が面白(おもしろ)いですよ。
A:小説(しょうーせつ)
B:ええ、知(し)りませんか。有名(ゆうーめい)な小説です。ああ、これです。読(よ)みますか。
A:いいですか。では、貸(か)して下さい。どうもありがとう。
B:どういたしまして。

A : 이 영화 봤어요?
B : 네, 봤어요. 하지만, 이건 영화보다 소설이 더 재미있어요.
A : 소설?
B : 네, 모르세요?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거예요. 읽을래요?
A : 괜찮아요? 그럼 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B : 천만에요.

* 映画(えいが) : 영화
* 小説(しょうせつ) : 소설
* 貸(か)す : 빌려주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54>

这是谁的?

이것은 누구의 것 입니까?

A: 这是谁的?
zhè shì shéi de
쩌 스 쉐이 더

B: 我的。
wǒ de
워 더

A: 这双鞋是新的吗?
zhè shuāng xié shì xīn de ma
쩌 슈앙 시에 스 신 더 마

B: 是新的。
shì xīn de
스 신 더

A: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B: 제것입니다.
A: 이 신은 새것입니까?
B: 새것입니다.

双 [shuāng] 한 켤레
鞋 [xié] 신, 신발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94>

敬遠(경원)

공경할 경, 멀리할 원

경원(敬遠)은 본래 '경이원지(敬而遠之)'로 존경하지만 멀리한다는 뜻이다. 즉 상대방을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속으로 경계함을 비유한다.

공자의 제자인 번지(樊遲)가 '지혜(知)란 어떤 것입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자신의 일에 노력하고, 귀(鬼, 인간의 영혼)나 신(神)은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면(敬鬼神而遠之) 지혜롭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論語, 雍也篇). 여기서 공경하지만 멀리한다는 '경원'은 귀신을 섬기되 신에 의존하거나 신이 무엇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길흉화복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자는 이처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대하여는 완전부정은 하지 않지만, 경계함을 늦추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는 괴이한 힘(怪力)과 어지러운 귀신(亂神)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論語, 述而篇). 여기서 '괴이함'과 '어지러움'이란 초월자(超越者)의 능력이다.

따라서 이런 능력에는 따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원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달라 조심할 대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